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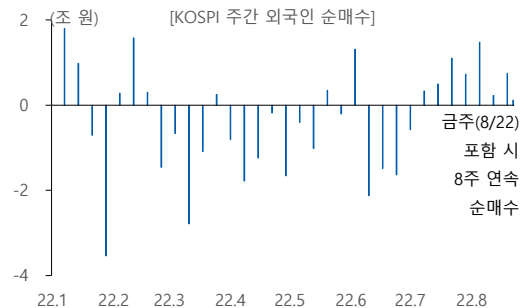


KOSPI 반등 약화와 숏커버링 점검

1. 반등 모멘텀 약화된 KOSPI

- 지난주 KOSPI -1.4%로 5주 만에 주간 하락 전환. 재차 상승한 환율과 금리 등 불리한 환경으로 전일(8/22)에도 추가 하락하며 반등 모멘텀 약화
- 1) 반등 피로감에 따른 단기 조정인지, 2) 베어마켓 랠리의 종료로 인한 하락 추세의 재개인지 판단이 필요
- 낙폭과대 스타일의 반등 주도 후 조정 및 외국인 순매수세 지속으로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최근 원/달러 환율의 재급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세는 금주까지 8주 연속 지속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증시 전반에 대한 숏커버링은 아직

- 외국인 순매수에 대해서 숏커버링(매도 포지션 청산) 성격이 강하고, 이러한 성격의 매수세가 해소되어감에 따라 하락세가 재개될 것이란 시각도 존재
- 숏커버링이 발생한 것은 사실. 그러나, 증시 전반으로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
- 또한 지난 5월 숏커버링 발생기 주가 반등 폭과의 비교, 연말까지 대차잔고를 축소 안정화하는 계절적 경향도 참고할 필요

7/1~8/18 시가총액 상위 기업 현황: 전반적
숏커버링으로 보기엔 방향성이 부재

종목명	주가 등락률(%)	외국인 순매수 (억원)	공매도 잔고비율 변화율(%)
삼성전자	7.9	6,376	0.0
LG에너지솔루션	21.8	9,038	-62.9
SK하이닉스	5.2	3,584	105.3
삼성바이오로직스	10.8	712	-26.7
LG화학	26.2	1,592	13.0
삼성SDI	17.3	5,659	-5.7
현대차	3.0	4,932	-32.0
NAVER	4.2	-2,334	12.8
카카오	13.3	-67	21.7
기아	-0.8	1,082	0.0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반등 모멘텀 약화된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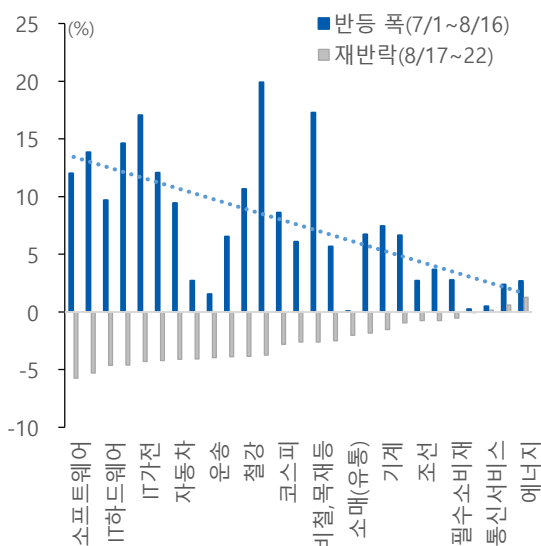
KOSPI 지수는 지난주 -1.4%를 기록하며 5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일(8/22)에도 1.2% 추가 하락했다. KOSDAQ 지수는 전일 800pt를 하회하며 지난주 이후 -4.3%의 약세를 기록했다.

4주 연속 반등 뒤 오랜만에 나타난 약세이나, 우려 심리가 만연했던 만큼 1) 단기 이익실현성 조정인지, 2) 지난주가 베어마켓 랠리의 정점이었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는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최근 조정폭이 컸던 업종들이 7월 이후 반등 구간에서 대체로 상승폭이 컸던 업종들이라는 점이다. 반등 구간의 주도 업종이 상반기 낙폭과대 업종임을 감안하면, 지난 자료(8/4)에서 언급했듯 낙폭과대 업종의 단기 반등세가 약화되는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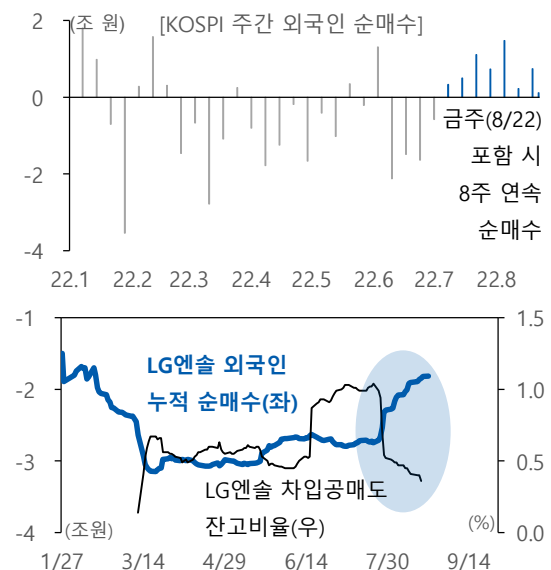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의 연고점 경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7월부터 전일까지 외국인은 KOSPI에서 약 4.9조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 사례처럼 숏커버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확인된다.

[차트1] 업종별 7월 이후 반등 폭과 최근 조정 폭 비교: 반등 폭이 컸던 업종들이 대체로 조정 폭도 확대되는 흐름



자료: Quantwise,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환율의 재급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 지속, 이에 대해서는 LG 엔솔과 같이 숏커버링이란 시각도 존재



자료: Quantwise,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2. 증시 전반에 대한 숏커버링은 아직

앞서 언급했듯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사례는 전형적인 숏커버링(short covering, 매도 포지션 청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증시 전반에 숏커버링이 발생했다고 보기엔 아직 어렵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지난해 이후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됐던 대형주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보면, 7월 이후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외한 8개 기업에 순매수가 나타났다. 이중 절반인 4개 기업에서만 공매도 잔고비율이 감소했다.

따라서 숏커버링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증시 전반적으로 숏커버링이 일어났고, 숏커버링 성격의 매수가 끝나감에 따라 다시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주장보다는 반등의 지속에 따른 단기 모멘텀의 악화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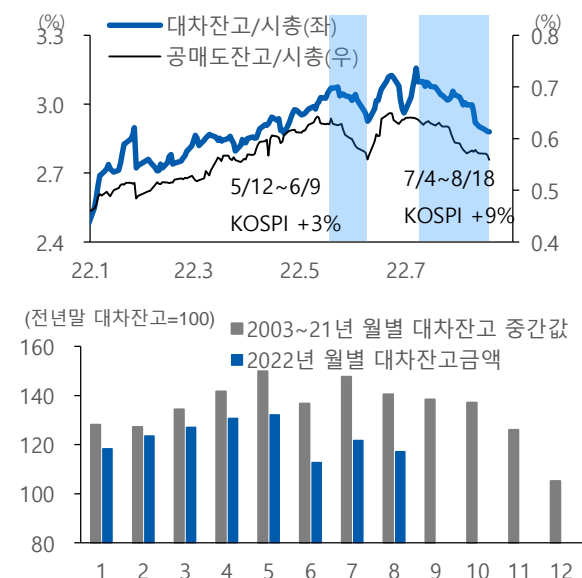
지난 5월 단기 숏커버링이 발생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지수 반등 폭에 비해 공매도 잔고 감소도 완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중 발생한 대차거래를 연말까지 축소 및 안정화하는 경향의 계절성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차트3] 7/1~8/18 시가총액 상위 기업 현황: 전반적 숏커버링으로 보기엔 방향성이 부재

종목명	주가 등락률(%)	외국인 순매수 (억원)	공매도 잔고비율 변화율(%)
삼성전자	7.9	6,376	0.0
LG에너지솔루션	21.8	9,038	-62.9
SK하이닉스	5.2	3,584	105.3
삼성바이오로직스	10.8	712	-26.7
LG화학	26.2	1,592	13.0
삼성SDI	17.3	5,659	-5.7
현대차	3.0	4,932	-32.0
NAVER	4.2	-2,334	12.8
카카오	13.3	-67	21.7
기아	-0.8	1,082	0.0

자료: Quantiwise,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숏커버링 발생은 사실, 그러나 지수 반등 폭에 비해 기울기 완만. 연말까지 감소하는 계절성도 참고



자료: Quantiwise, 유인타증권 리서치센터